

광주·전남 올해 시·도정 결산

# 민생 최우선 '광주다움' 정착

### 기회도시 기틀 다져... '예산안 삭감' 姜시장·시의회 갈등 아쉬움

광주시는 올해 가장 큰 성과를 각종 위기 속에서 민생을 최우선시 한 '광주다움'의 정착으로 꼽았다.

광주·전남, 광주·대구 간 진일보한 초광역협력 상생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을 다양한 주제로 정례적으로 만나는 색깔 있는 소통 시스템 정착 ▲이태원 참사 분향소 명칭 바로잡기 ▲동북대 관리권 이양 및 혁신도시 발전기금 출연 합의 등 해묵은 숙제 해결 등도 성과로 자평했다.

특히 국비 3조3천81억원 확보로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과 광주AI 영재고 설립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국립정선초년치료재활센터 건립 등 시민 숙원 사업을 추진하고 기회도시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복합쇼핑몰과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군공항 이전사업, 지산IC 진출로 개통, 백운광장지하차도 설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등 이른바 '5+1 현안'이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

강기정 시장은 취임 후 첫 결재로 민



강기정 광주시장이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생경제대책본부 운영을 지시했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와 특례보증 용자 지원을 확대했다.

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상생카드, 노인·청년 일자리 사업은 정부 기조와 상관없이 예산을 우선 편성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분향소 명칭을 바로잡아 '광주다움' 대처에 다른 지자체들이 하나들 동참하면서 시민에 큰 울림을 전하기도 했다.

강 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한 '의숙한 것과의 결별'로 소신과 창의,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으로 광주시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다만, 광주시의회가 내년 광주시 예산을 증액 한 푼 없이 이례적으로 2천억원의 삭감을 강하게 관련해 강시장과 광주시의회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강기정 시장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물 질약 운동에 동참해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절수 운동에만 기대지 않고 물 순환체계로 가는 종합 대책을 만들어 가급 상황을 근본적인 '기후위기행동' 마련의 기회로 바꿔보겠다. 광주에 사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회이자 자부심이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담당하게 '광주답게' 2023년을 열겠다"고 밝혔다. /박선경기자

# 전남행복시대 도약 발판 마련

### 그린수소에너지지심 등 첨단전략산업 기반 구축...의대 유치는 해 넘겨

전남도는 올해 전남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대도약 전남행복시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 전남도정 성과는 크게 ▲국고 예산 대거 확보 ▲첨단전략산업 기반 마련 ▲농축수산물·관광자원 세계 인정 ▲도민 제1주의 실현 ▲새로운 지방시대 선도 ▲각종 현안사업 해결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전남 대도약을 견인할 국고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내년 국고예산 역대 최대 8조6천500억원 확보,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지심,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등 대도약을 이끌 핵심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개교,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 예타 통과, 개조전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176개사와 10조 규모 투자유치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이 두드러졌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예타 통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남도장터 법안화 및 남도장터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US 오픈 등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농어업 소득 증대에 집중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해남 오시아노 리조트, 신안 자은 씨원 리조트 등 명품숙박시설 확충, 세계갯벌자연유산 보존본부와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유치 등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조성에 주력했다.

도민행복 분야 역시 청년 창농타운, 희망디딤돌 통장, 청년문화복지카드, 전국 최초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면세유 인상차액의 50% 지원(2회), 재해보험료 자기부담분 10% 인하, 전국 최초 1천원 여객선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확대(8호선) 등 도민 제1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지방시대 분야에서도 전남·광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영호남 상생 비전선포식, 경기도와 상생협력, 남부권 영호남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과 '여수박람회특별법' 국회 통과, 74년만에 정부차원의 여순사건 희생자 결격 등 도민의 염원인 각종 현안 사업들이 해결됐다.

하지만 국립과대대학 유치와 혁신공항 건립 등 일부 현안 추진이 해를 넘긴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김영록 지사는 "도민들 덕분에 전남이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로 뽐낼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해에도 세계로 뽐내려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를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 광주시, 오염총량관리사업 '최우수'

광주시는 27일 "올해 환경부 영산강 유역환경영향이 실시한 2021년 회계연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 평가에서 오염총량관리사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 평가는 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는 지

자체를 대상으로 오염총량관리사업 등 기금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예산 집행, 사업 관리 등 항목을 1년 단위로 평가한다.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성과 평가에서 광주시는 오염총량관리사업 분야의 사업 관리 실행 및 총량 이행에

서 사업 대상 22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광주시는 포상금 및 향후 사업비 증액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신 수질개선과장은 "영산강과 광주천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염총량관리사업 추진을 통해 하천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선경기자

##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예타 통과

전남도는 27일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제8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3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국비 6억원을 확보, 본격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립난대수목원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비 1천475억원을 들여 완도수목원에 건립되며 내년부터 국·공유지 토지 교환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된다.

김영록 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항이

자 민선 8기 정책과제인 국립난대수목원은 수목원 기능 최적화를 위해 기존 기반 시설을 활용한다. 보전·복원지구, 연구·시험지구, 전시·관람지구, 서비스·교육지구 등으로 재배치되며 연구기능 강화 및 새로운 전시·관람·교육 서비스 기반이 확충된다.

특히 완도수목원의 지형적 한계로 전시·관람이 하단부에 있는 전시온실, 산림박물관 등 시설 위주로 이용된 점을 보완해 기존 임도를 따라 모노레일을 도

입해 수목원 전시·관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인공환경조성실(바이오트론)을 조성해 난대수목별 생육 특성을 연구해 밝히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수목을 연구해 온대지역을 대신할 탄소흡수원을 발굴하고 신소재를 발굴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화 기능도 수행한다.

산림청 연구 결과, 국립난대수목원이 건립되면 생산 유발효과 약 1조3천631억원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7천283억원, 1만여명의 취업·고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정기자

## 전남도, 내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확대

### 행복드림 돌봄공동체·지역 행복플랫폼 등 신규사업 추가

전남도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민선 7기 때부터 추진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2023년부터 확대 추진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8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도입, 50개 마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2천602개 마을공동체를 육성했다. 2023년부터는 이 사업 외에 '행복드림 돌봄공동체'와 '지역 행복플랫폼 운영'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해 지원한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소멸해가는 마을에 주민 스스로 마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자립형 마을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2023년 400개 안팎의 공동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30일까지 시·군에서 모집한다.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공

적 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주도적으로 서로 돌보며 건강을 챙기는 '마을돌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0~150개 지원을 통해 500개 돌봄공동체 육성을 목표로 한다. 매년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해 사업 종료 후 사업평가를 통해 최대 5회 지원한다. 2023년 지원 마을을 오는 30일까지 시·군에서 모집한다.

지역 행복플랫폼 운영 지원사업은 지역 유희시설을 활용해 주민사랑방, 교육공간, 공동작업장·빨래방 등 주민 소통창구로서 거점공간을 마련해 공동체 활동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2월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도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격려하고 성과 공유를 위해 매년 마을공동체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또 공동체 활동 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모사업 현황을 게시해 그동안의 시군별 활동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사업설명회 책자와 분야별 사업계획서 샘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회계교육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병남 사회경제적과장은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전남마을행복디자인 양성·교육, 공동체 거점 공간 마련 운영 지원 등 지속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이 되고 지역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매일신문은 휴대폰으로 본다. 시·읍·면·동별 서비스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

# 2023년도 전라남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공모사업 시행

**신청기간** 2023년 1월중

**신청자격**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일반단체

**공모사업 유형(4개분야)**

**예산규모** 150백만원(전라남도 양성평등기금)  
• 1개 사업별, 단체별 최고 10백만원 이내 지원

**사업추진기간** 2월 ~ 11월

**문의처**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 (061) 286-5924

### 응모시 유의사항

- 사업은 전라남도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하고, 1개 시·군만을 위한 사업은 지원하지 않음. (2개 이상 시·군)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환수조치
-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 및 포기한 단체는 향후 3년간 사업선정에서 배제

